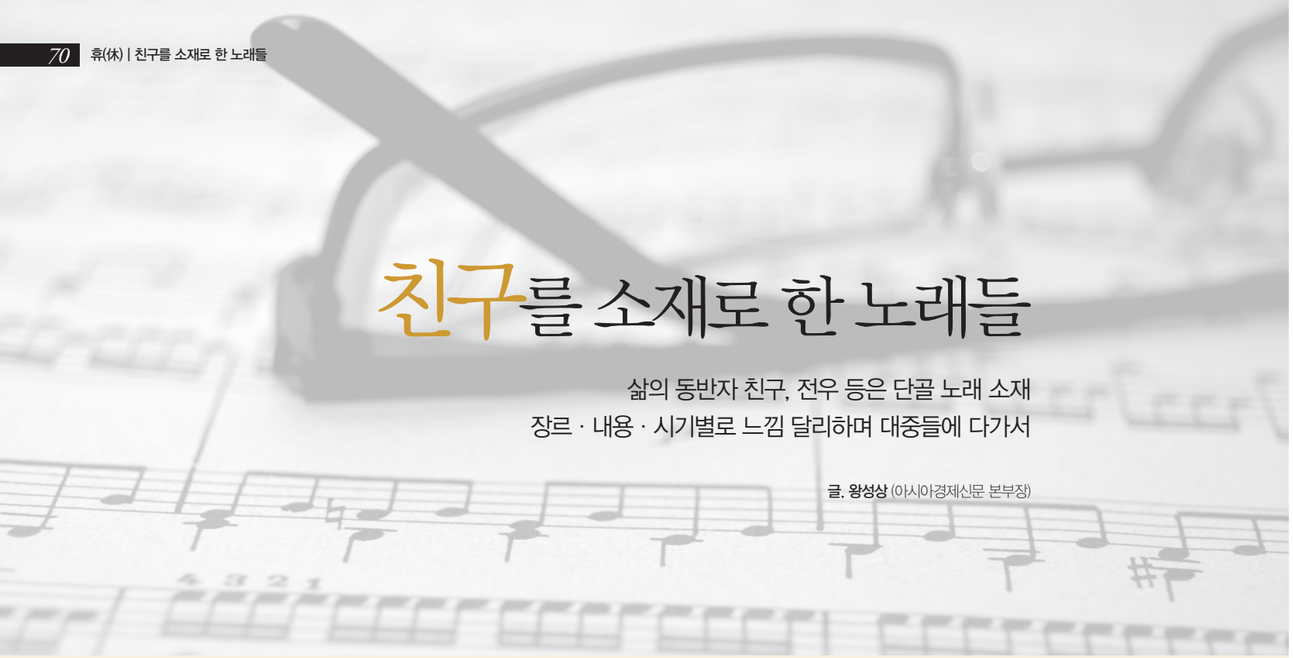


친구를 소재로 한 노래들

삶의 동반자 친구, 전우 등은 단골 노래 소재
장르 · 내용 · 시기별로 느낌 달리하며 대중들에 다가서

글.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죽마고우(竹馬故友)', '금란지교(金蘭之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사람을 만드는 것도, 망치는 것도 친구다.' 친구와 관련된 속담들이다. 인생에서 친구는 삶의 동반자로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벗, 우정을 소재로 한 노래들도 많고 다양하다. 장르별, 내용별, 시기별로 느낌을 달리하며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또래로서 좋아하고 그린다는 점이다. 하는 일, 사는 곳, 남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친구를 소재로 한 노래는 동요에서부터 나온다. '별님동무 고기동무'(권태응 작사, 윤용하 작곡), '아파트 친구들'(윤이현, 신상춘), '친구야 친구'(엄기원, 이호섭) 등이 있다. '아파트 친구들은'은 아파트가 도시 숲을 이루는 요즘 어린이들이 만나서 노는 모습을 그림 그리듯 보여준다. 산으로, 들판으로 뛰어노는 농촌 어린이들과 다른 분위기여서 이채롭다. '딩동 딩동 딩동댕 우리는 신나는 아파트 친구들 / 놀이터로 모여라 모두 모여라 / 푸른 하늘 맑은 바람 우리를 반긴다 / 가슴 활짝 젖히고 하나 둘 셋 넷 / 하늘 키 닿게 뛰어보자 땅이 울리도록 달려보자 / 아파트 친구들 정다운 친구들 아파트 친구들 아파트 친구들'로 나간다.

군가엔 전우(戰友)를 소재로 한 게 몇 곡 있다. 1951년 '전우야 잘 자라'(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52년에 나온 '전우의 노래'(최광열, 김희조), 1970년 '유쾌한 전우'(김봉의, 전석환), 1973년 '전우'(박목월, 나운영), 1983년 '사랑하는 전우야'(길옥윤), 2005년 '나의 전우야!'(국방부, 배진렬), 2006년 '모두 다 친구'(장영희), 2005년 '친구가 불러주는 진짜 사나이'(배진렬 편곡) 등이 그것이다. '친구가 불러주는 진짜 사나이'는 1962년 만들어진 '진짜 사나이'(유호 작가, 이홍렬 작곡)를 편곡한 노래다. 힘차고 흥겹게 부르도록 돼있는 '진짜 사나이'를 스윙리듬으로 고치고 앞에 나레이션을 넣었다. '수진아! 갔다올께. 울지 말고 이제, 오빠한테 노래 불러준다고 그랬잖아. 기다려줘, 기다릴 수 있지?'란 랩이 나간다. 노래 뒷부분에도 랩이 길게 추가됐다. 노랫말도 바뀌었다. 1절 중간에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가 '전투와 훈련 속에 맺어진 전우야~'로, 3절의 '너와 나 진짜사나이 명예에 살았다'가 '너와 나 진짜사나이 결심에 살았다'로 고쳐졌다.





01 '전우야 잘 자라'가 영화주제곡으로 삽입된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년)의 포스터

02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스틸사진

사진.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6.25전쟁 때 만들어진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로 나가는 '전우야 잘 자라'는 6 · 25전쟁으로 숨진 전우를 떠올리는 노래다. 현인이 불러 히트한 이 곡은 1951년 국방부 연예중대에서 근무하던 유호 씨가 작사하고 같은 중대의 박시춘 씨가 작곡했다. 4분의 4박자로 힘찬 행진곡 풍이다. 이 노래는 전쟁의 아픔을 달래주기위해 만들어졌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이 9 · 28서울수복 뒤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 나온 대표적 진중가요다. 전쟁기간 장병들 심정을 노래한 '전선야곡'과 더불어 사기를 북돋아준 이 곡은 '북진의 노래'로도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노래가 히트하기까지엔 에피소드들이 많다. 유호 씨는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돼 명동 술집에서 작곡가 박시춘 씨를 만나 막걸리를 마셨다. 밤 12시 통금시간이 되자 서울 필동 박 씨 집으로 가서 밤새 술을 마시며 "북진통일이 임박했으니 군인들 사기를 북돋울 노래를 만들자"며 작사 · 작곡한 게 '전우야 잘 자라'다. 노래는 북진장병의 주제곡이 됐으나 1 · 4후퇴 때 육군본부에 의해 금지곡이 됐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란 가사가 불길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래는 휴전 뒤에야 불릴 수 있었다. 이 노래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년) 영화주제가(OST)로도 유명하다. 원곡은 현인이 불렀지만 주제가는 남성노래그룹 '별 넷'이 합창했다.

TV드라마주제곡으로 태어난 군 관련 친구 소재 노래도 있다. 2010년 6월 KBS 1TV 6 · 25 60주년 주말드라마('전우') 출연배우들이 주제가 '친구여'를 불렀다. 그해 6월 19일 첫 방송된 '전우' 주인공 분대원(8명)인 최수종(51) 김뢰하(48) 남성진(43) 홍경인(37) 이승효(33) 박상욱(37) 류상욱(28) 안용준(26)이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참가했다. 배우들의 OST취입은 분대장 역할의 최수종 아이디어로 이뤄졌다. 노래는 제목처럼 친구를 그리는 서정적인 곡으로 뭉클한 감동을 준다. '친구여'는 '대왕세종', '추노' 등 인기드라마 OST에 참여한 최철호 음악감독이 작사 · 작곡하고 가수 김장훈이 부른 버전도 있다. 온라인 음악사이트로 가장 먼저 공개된 데 이어 김장훈, 인순이,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부른 곡도 있다.

박 대통령 지시로 히트한 '전우가 남긴 한 마디'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로 나가는 '전우가 남긴 한 마디'(전오승 작사 · 작곡, 허성희 노래) 또한 전장 터의 동료를 노래했다. 제목과 노랫말부터가 가슴을 저민다.

이 곡이 첫 선을 보인 건 1976년이다. 전오승 씨는 1975년 월남이 전쟁에 지면서 여파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군인들의 애국심을 담은 가요를 만들어야겠다며 신인 여가수 허성희에게 곡을 줘 연습시킨 뒤 잘 아는 음반제작자 박 모 씨를 찾아갔다. 노래연습테이프를 들은 박씨는 'OK'였고, 음반제작에 들어갔다. 노랫말이 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면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탱고풍이라 성공을 점친 것이다. 박 씨는 음반이 나오자 방송사를 돌며 홍보에 나섰으나 재고만 쌓여갔다. 그럼에도 박씨는 군 계통 가요가 없다는 걸 알고 군연예대 후배인 허참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육군본부 정훈참모를 소개받아 군에 노래가 알려지게 됐고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다.

노래를 들은 박 대통령은 문공부 장관을 불렀다. "요즘 좋은 노래가 나왔는데…. 임자! 아는가?", "글쎄요. 흑시…, 총알이 빗발치는…", "알긴 아는구먼, 그런데 왜 방송에 안 나와?", "조치하겠습니다!" 장관은 곧바로 방송사 사장들을 불러 "각하가 좋아하는 노래이니 신경을 써라."고 했다. 때마침 6월이어서 '전우가 남긴 한 마디'는 전파를 탔다. 허성희는 남대문시장에서 산 예비군복에 명찰을 달고 군화 신은 모습으로 출연했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음반회사 앞엔 현금을 갖고 몰려든 트럭들이 줄을 섰다. 노래가 히트했음에도 작사 · 작곡가 전오승 씨는 군사독재가 싫어 197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전 씨의 애제자 허성희도 외국으로 떠났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다. 전 씨 가족들이 평안북도 진남포에서 내려와 서울서 살던 중 6 · 25전쟁이 터져 동생(전기승)이 참전했다.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 개입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그런 가운데 전기승 병사는 전투에서 머리와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시 전쟁터로 나가 결국 산화했다. 전우를 구하려다 일어난 일이었다. 동생의 전사통지를 받은 형은 망연자실했다. 전 씨는 이민을 떠나기 전 어느 날 동생이 묻힌 국군묘지를 찾았다. 그날 밤 그는 동생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진혼곡으로 '전우가 남긴 한 마디'를 만들었다. 과묵한 성격의 전 씨는 이 노래를 만들면서 무척 울었다.

짝사랑했던 여학생 노래한 '동무생각'

가곡에도 친구를 노래한 게 있다. '동무생각'(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사우월'(思友月)(향파, 구두희), '길동무'(길필승 작사 · 작곡) 등이 대표적이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으로 나가는 '동무생각'은 1922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인기다. 4분의 4박자로 아름다운 노랫말, 부드러운 멜로디가 감칠맛을 더해준다.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엔 마산 출신 문인이자 사학자인 이은상, 대구 출신 작곡가 박태준과 관련 있다. 더욱이 박태준이 노래의 중심에 있다. 작곡도 했지만 노랫말 속의 동무가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학생이다. 박태준은 숭실전문학교에 진학, 음악을 전공하고 1921~23년 마산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때 이은상은 같은 학교 국어선생으로 비슷한 연배의 둘은 친했다. 어느 날 박태준은 학창시절얘기를 했다. 1911~16년 계성중학교에 다닐 때 대구의 명문인 대구공립여자보통학교(경북여고) 여학생을 사모했다는 것. 그 여학생은 백합처럼 미녀였다. 그러나 박 선생은 내성적이라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고 그녀는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가버렸다. 이은상은 그 얘기를 듣고 "잊지 못할 소녀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곡 안에 담아두면 박 선생 소원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가사를 써줄 테니 곡을 붙여보겠나?"며 시를 써서 줬다. 박태준은 "그러겠노라"며 곡을 만들었다. 대구학창시절 등교 때 자신의 집 앞(섬유회관 부근)을 지나던 그 여학생을 잊지 못했던 옛 짝사랑이 작곡 동기가 된 셈이다. 그렇게 해서 1922년에 태어난 곡이 바로 '동무생각'이다. 노래 원래 제목은 친구를 생각한다는 '사우(思友)'였으나 뒤에 '동무생각'으로 바뀌었다.

노랫말에 나오는 '청라언덕'이란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를 써서 박태준이 살던 동네 언덕을 가리킨다. 이 '청라'는 지금도 푸른 담쟁이로 뒤덮인 동산병원 내 선교사 사택일대를 말한다. 2009년 6월 17일 대구시 동산동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언덕엔 '동무생각' 노래비가 세워졌다. 한편 노래 주인공인 여학생은 일본생활을 접고 대구의 어느 유력한 변호사와 결혼해 살던 중 경주~대구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03 '동무생각' 노래비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언덕에 서 있다.(2009.6.17)

외국가곡엔 '그리운 벗'(호오돈 작곡)이 있다. '저 하늘의 뭇별보다 더 멀리 간 나의 벗~'으로 나가는 이 노래는 멜로디가 특이하다. 8분의 3박자로 2부 합창으로 부르면 하모니가 잘 어울린다. 외국민요엔 아일랜드 곡 '그리운 벗'이 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호오돈이 작곡한 '그리운 벗'과 제목은 같지만 가사는 다르다. 8분의 6박자로 '하늘 저 멀리 고요한 바다 너머 나의 그리운 벗이 있네~'로 나간다. 스페인민요 '친구의 이별(Juanita)'도 있다. 이 노래는 4부 혼성합창곡으로 유명하다. 스코틀랜드 민요 '아름다운 나의 벗(The Blue Bell of Schotland)', 독일민요 '아름다운 동무여(Brother So Fine)'도 있다.

친구 소재 노래 가장 많은 분야는 대중가요

친구 소재 노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대중가요다. 내 친구(1969년, 임영호, 신세기레코드), 새장 속의 친구(김광석), 새장 속의 친구(동물원), 세 동무(김서정 작사 · 작곡, 김연실 노래), 소꼽동무 새 색씨(김신일 작사 · 작곡), 에헤라 친구야(정태춘 작사 · 작곡 · 노래), 영원한 친구(장세용, 외국 곡, 나미), 영일만 친구(최백호), 옛 친구(김우택 작사 · 작곡, 김세환), 옛 친구에게(여행스케치), 오래된 친구(빛과 소금), 오래된 친구(어떤 날), 전우가 남긴 한 마디(전오승 작사 · 작곡, 허성희 노래), 친구(김민기, 1971년), 친구(안재욱), 친구(이용복), 친구야(윤항기), 친구야(김범룡 작사 · 작곡, 김범룡 · 박진광 노래), 친구야 사랑해(한스밴드), 친구야 친구(전우, 이복윤, 박상규), 친구야 친구(윤항기 작사 · 작곡, 윤복희), 친구에게(김민기), 친구여(하지영, 이호준, 조용필), 친구여(조PD, 박근태, 인순이), 친구와 연인(015B) 등 찾아보면 많다. '어느 날 여고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나가는 이수미의 '여고시절'(주영자, 김영광), '여고 졸업반'(장재훈, 정민섭, 김인순), '여고 동창생'도 있다.

남일해가 2001년 부른 '안부'는 중장년층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노래해 가요팬들 사랑을 받고 있다. 소곤소곤 얘기하는 듯한 노랫말이 정겹게 다가온다.

여보게 지금 어떻게 사는가 / 자네집 사람도 안녕하신가 / 지난번 자네를 만난 그날은 / 손 꼽아본 한해가 넘어갔네 / 자네도 지금 힘들지 않는가 /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게 / 다음 주 토요일은 시간이 어떤가 / 서울로 한번 올라오게

1938년 대구서 태어난 남일해는 1959년 '비 내리는 부두', 1961년 이정표, 1962년 '첫사랑 마도로스', 1963년 '빨간 구두 아가씨', 1964년 '맨발로 뛰어라' 등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했다. 1960년대 최희준과 쌍벽을 이룬 중저음의 인기가수다. 가장 히트한 노래는 '이정표'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인기를 얻은 노래는 '빨간 구두 아가씨'다.

최백호 벗 그린 '영일만 친구'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로 나가는 '영일만 친구'는 낭만파 가수 최백호(63)의 데뷔 초기 노래로 1979년에 만들어졌다.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그가 가사를 만들고 곡까지 붙인 뒤 통기타를 치며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불러 인기를 모았다.

이 노래는 최백호의 친구를 그렸다. 많은 이들은 최백호가 포항(영일)사람으로 알지만 부산 출신이다. 1970년대 후반 영일만에서 음악카페를 하는 양산 출신 친구(전 울산문화방송 라디오 PD 홍수진 씨)를 찾아간 게 계기가 됐다. 지금은 저 세상 사

친구들 소식은 노래에 있다

람이 됐지만 노래가 만들어질 때 홍 씨는 영일만의 오두막에 살면서 음악다방 DJ로 이름을 날렸다. 둘은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을 나눴다. 그러던 중 1970년대 후반 어느 날 영일만의 한 해변술집에서 만나 유신독재시대상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둘은 청년들을 암울한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노래를 만들자며 그 자리서 작사 · 작곡한 게 '영일만 친구'다.

음반이 나왔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러던 중 1980년부터 대학가에서 뜨기 시작해 히트곡이 됐다.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최백호는 한 언론에서 "그 시절 젊은이라면 가졌을 억눌린 세상에 대한 답답함, 갑갑함, 그것을 풀어낼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1994년 12월 3일 영일만 들머리(포항시 대보면 대보2리 호미곶)의 등대박물관 앞엔 '영일만 친구' 노래비가 세워졌다. 최백호 친구 홍수진 씨 고향(양산 원동면 원리)의 매화공원에 노래비가 섰다.

인기가수 조용필이 부른 '친구여'(하지영 작사, 이호준 작곡)도 친구 소재 가요로 유명하다. 1983년 그가 신곡발표 때 음반(제5집) A면 맨 아래 담았던 작품인데도 졸지에 떴다. 친구란 정겨운 소재에다 서정적인 노랫말, 멜로디가 먹혀든 것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히트곡을 쏟아낸 조용필은 연륜이 쌓여 가는데 뭔가 새 노래를 선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던 중 어느 날 편곡과 밴드를 맡아온 이호준 씨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이 씨는 곰곰이 생각했다. 조용필의 곡이 빠른 편이어서 이번엔 느린 스타일로 가면 어떨까? 생각했다. 노래템포(슬로 락), 박자(4분의 4박자) 등 원칙을 정한 이 씨는 며칠 뒤 서정적인 멜로디가 떠올라 편곡과 녹음작업까지 마쳤다. 문제는 가사였다. 작사가들에게 곡을 들려주며 의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이 씨는 녹음한 테이프를 집으로 가져갔다. 음질이 고른지 점검하는 게 직업적인 버릇이었다. 곡을 틀어놓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의 아내(하지영 씨)가 거들었다. "무슨 곡이에요? 멜로디가 참 좋은 것 같네요." 다음날 설거지를 마친 아내는 어제 듣던 녹음테이프를 틀어놓고 집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를 스치는 단어들이 있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였다. 그녀는 청소를 멈추고 펜을 들었다. 학창시절에 대한 안타까운 그리움이 몰려든 것이다. 내친 김에 수필을 쓰듯 담담하게 노랫말을 써나갔다. 어느 듯 한 곡의 노랫말이 완성됐다. 하 씨로선 글이란 것을 처음 써본 것이다. 그날 밤 남편 이씨는 식탁에 놓인 글을 보고 읽어본 뒤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하 씨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가져가지 마세요"라며 쑥스러워했다. 그러나 남편은 못들은 척 했다. 다음날 조용필을 만난 이 씨는 "이거 하지영이란 여대생이 쓴 건데 한번 보겠느냐?"며 자신의 집사람 글을 내밀었다. 조용필 입가에선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런 멜로디엔 이런 가사야!" 조용필은 노랫말이 좋다며 곡에 맞춰 몇 번 연습한 뒤 녹음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음반이 나와 서서히 뜨기 시작, 그해 말 KBS에서 가사대상을 받았다. '친구여'는 가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작곡이 뒤에 되는 가요작업의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04 '영일만 친구' 노래비
영일만 들머리(포항시 대보면 호미곶)의 등대박물관 앞에 있다.

방송 3사 1위 곡, 인순이의 '친구여'

인순이가 부른 '친구여'도 에피소드가 많다. 그는 2004년 이 노래로 21년 만에 공중파방송 3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방송횟수, 음반판매고, 네티즌선호도 모두를 합쳐 으뜸을 한 것이다. 노랫말을 쓴 조PD가 영향을 미친 점도 있지만 인순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가창력이 먹혀들었다.

그룹 빅뱅이 부른 드라마주제가 '친구'도 있다. 2009년 6월 27일 첫 방송된 MBC 주말기획 '친구, 우리들의 전설'을 통해서다. 원타임의 테디와 빅뱅의 탑이 작곡했고 탑과 태양이 불렀다. '친구'는 벗과의 우정과 방황을 그린 가사로 드라마 내용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일본 메이저무대에 진출한 빅뱅은 출국 전에 녹음,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친구, 우리들의 전설'은 2001년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친구'를 원작으로 한 20부작 드라마다.

가수 홍경민의 히트곡 '흔들린 우정'은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얽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이 노래는 홍경민의 친구인 탤런트 정태우가 2008년 10월 중순 MBC드라마넷 '삼색녀 토크쇼'에 나가 절친했던 한 벗의 배신으로 사랑과 우정을 다 잃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정태우는 "홍경민의 히트곡 '흔들린 우정'이 자신의 이야기다. 가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정태우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가진 한 친구가 여자친구 생일날 장미꽃 100송이를 보냈고, 여자친구 또한 그 친구 마음을 거부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친구 소재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음악인로서 우정을 이어가는 가수들도 있다.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조영남 · 윤형주 · 송창식 · 김세환이 그들이다. 2011년 3월 하순 이들이 부른 우정의 앨범도 나왔다. 자주 출연했던 세시봉시절 히트곡 68곡이 담겼다. 40여 년 변함없는 우정과 천상의 하모니는 힘든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IN

필자 소개
마산 중 · 고,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특히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 없는 마산항' 등을 취입했다. '기자 가수'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